

대학문화, 그 새로운 가능성의 모색

권 영 민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1. 학문적 문화로서의 대학문화

한 국 사회에서 대학문화란 것이 어떤 존재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대학 사회 자체의 구성과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대학문화라는 것은 대학이라는 특수한 사회 집단의 속성으로 인하여 사회 문화적 정체성을 부여받기는 어렵다. 대학 사회의 구성원들은 매우 유동적이다.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면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와 지식과 교양을 전수받는 학생과 대학의 경영과 교육과정을 돕는 교직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대학 사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

고 있는 학생은 고정적인 집단은 아니다. 대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수학 기간뿐이다. 대학의 이념과 성격도 전체 사회의 문화적 성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대학이라는 사회적인 제도는 학문의 연구와 교육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학자와 학생들의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대학은 이 공동체의 기본적인 이념이 되고 있는 지성을 옹호한다. 따라서 학문의 자유와 지성의 자율적인 옹호 이외에 보편적인 의미에서 대학 자체의 이념이란 것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문화라는 말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하나는 대학이라는 것이 지니는 사회적 특성과 연결된다. 대학은 최고의 지성이 모이는 선택된 집단이다. 대학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신은 이

지성의 집단이 누리고 있는 이성과 그 자율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문화는 이성이 중심을 이루는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은 개인의 이성적 능력을 계발하고 그 이성에 기초하여 통합된 자아의 길을 추구하며, 그 잠재력을 해방시키는 데에 교육의 목표를 삼는다. 여기서 말하는 이성적 능력의 발달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문제에도 비슷한 속성을 드러낸다. 사회적 이성은 개인을 순화시키며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통합의 힘을 발휘한다. 대학은 이러한 이성에 근거하여 인간의 역사와 문화를 재해석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그 가능성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다.

대학문화라는 말이 지니고 있는 또다른 의미는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학문의 성격과 직결되어 있다. 대학에서의 학문은 언제나 이성적 비판의식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대학문화는 비판적인 지성과 창조적인 의식에 기반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문화는 보수적인 기성 사회의 문화에 대한 새로운 도전의 성격이 강하며, 창조적인 열정과 실험적인 정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진보적인 문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학문이라는 넓은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문화는 학문적 문화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다른 어떤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학문화는 학문의 과정 속에서 독자적인 전통을 형성한다. 대학문화의 특수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성격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2. 대학과 사회, 그리고 대학문화

한국 사회에서 해방 이후 가장 특이한 성장을 보인 것이 바로 대학 사회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수많은 대학이 설립되었고, 대학생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였으며, 대학의 규모가 비대해졌다. 대학의 발전이라는 것이 외형적인 성장에 의해 평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대학 사회의 확대는 근대화를 목표로 했던 우리 사회의 성장 지향적인 속성을 잘 보여주는 징표가 되었다.

그런데 이같은 대학의 확대는 대학의 자율 기능을 억압하는 각종의 정부 규제 속에서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대학의 설립과 시설 기준, 학생의 입학과 졸업 절차, 학사제도의 운영, 교수의 임용 등 모든 문제들에 대한 행정적인 규제가 계속되었다. 물론 일부 대학에서의 학사 제도의 편법적인 운영이나, 대학 운영의 탈법성 등이 문제가 되기는 하였지만, 대학에 대한 외부의 규제는 대학의 기본적인 요건이 되는 자유 이성의 기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다. 대학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학문 자체에 대한 정치적인 간섭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임으로써 더욱 심각한 국면에 이르게 되었다. 학문은 자유가 그 생명이며, 자유를 통해서 그 창조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학문의 모든 영역과 그 방법의 선택 자체가 규제된다면, 새로운 학문의 지평이 열리기 어렵다. 특히 대학의 학사 운영 자체의 경직성은 외부적인 간섭에 의해 초래된 현상임은 물론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의 발전 자체를 지체시켰고, 학문의 자율적인 발전을 저해

하였다.

특히 대학에서의 학생 활동은 언제나 정치적인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일반 사회에서 정치적인 표현이 규제되면서 더욱 고조되었고, 학생들의 활동이 자연스럽게 정치지향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회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정부는 이러한 학생운동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대립적인 국면이 지속되면서 대학 사회는 점차 정치적인 현실과 일정한 거리를 지니게 되었다. 학생들의 활동은 언제나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자율적인 이성의 기능이란 것은 하나의 허상에 불과한 것이 되었다.

이같은 사회적 환경으로 인하여 한국의 대학은 그 성장 과정에서 정치 권력으로부터 끊임없이 간섭과 규제를 받아왔으며, 자율적인 학사 운영의 기회를 제대로 가져보지 못하였다. 대학 자체의 외형적인 확대와 그 사회적 영향력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문화적 창조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입학 시험을 치르고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을 교육시켜 사회로 배출하는 일종의 취업 준비기관이 되었고, 학문 연구보다는 실용적인 기술 연마와 지식의 습득에만 매달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에서 대학이 문화적인 창조 공간으로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대학이 추구하는 이상과 사회 현실 사이의 엄청난 격차를 대학 내부에서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져 들었다. 창조적인 대학문화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960년대 이후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모든 문화운동은 삶의 현실이 정치

사회적 조건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는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과 사회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성격을 드러내었다. 대학 사회를 중심으로 비판적인 지식인과 행동적인 학생들이 이러한 문화운동의 주체가 되자, 이들이 주도해온 실천적 문화운동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군사 정권의 독재 정치 체제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식의 사회적 확산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체제 순응적인 일반 사회의 문화 현상 전반을 비판하고 사회적 민주화를 지향하는 문화적 요구를 더욱 확고하게 주장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에서 대학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운동이 기존의 사회 질서와 정치, 그 현실에 대해 도전적이고도 비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한국의 대학 사회가 가장 급격한 성장을 이룬 지난 '70년대 이후 대학문화는 그 이념과 성격, 형식과 방법이 모두 창조적이며 실험적인 정신보다는 기존의 사회 질서와 정치 체제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중심으로 하는 반문화적인 속성을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민주화를 지향하는 몇 가지 특징적인 양상을 드러내게 되었다.

첫째, 대학문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학생운동은 기존의 정치 세력에 대항하여 민주화의 실천을 주장하는 일종의 저항적 실천운동으로 변화하였다. 현실 사회의 모순과 비리를 비판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념적인 과격성을 나타내게 되었으며, 그 실천 방법도 파괴적인 속성을 지니게 되었다. 학생운동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낭만적인 충동보다는 이념적 열기가 더했으며, 그 실천적인 목표는 언제나 대학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었다.

둘째, 대학의 학생운동은 민중문화를 과감히 수용함으로써 대학문화의 새로운 패턴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인 민중 예술로 전해져 오던 가면극이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농악을 중심으로 하는 민중적인 음악도 학생운동에 새롭게 접목되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민중 예술의 수용은 문화적 주체意識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고, 바로 여기서 이른바 '운동권 문화'의 새로운 정신과 방법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기성의 문화 예술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폭넓은 민중 문화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학생운동을 통해 구체화된 민중 문화운동은 대학문화의 좁은 테두리를 벗어나 사회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문화의 민주화와 공동체 문화의 확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문화의 모든 영역에 대한 민중의 참여를 강조하면서 문화적 기회의 균등화와 그 동질성의 회복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문화적 귀족주의와 보수주의를 모두 반민중적인 것으로 비판하였다. 문화라는 것을 특수한 계층이 누리는 사회적 특권처럼 인식하였던 배타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민중의 삶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는 일상적인 삶의 방식 전체를 의미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민중문화는 당연히 민중을 주체로 내세우게 되었고, 민중적인 가치와 그 질서를 중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에서 일찍이 경험할 수 없었던 문화의 민주화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확대되기 시작한 이러한 민중 문화운동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윤리적 가치 기준을 설정하는 데

에 크게 기여하였다. 민중의식은 정치적 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된 군부 독재에 항거하여 민주화를 내세웠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빈부의 격차와 부조리한 현실의 배경을 강조하였다. 산업화 과정에서 얻어낸 경제 성장과 그에 따른 이득을 균등하게 배분할 것도 주장하였다. 이같은 정치적 민주화, 사회의 인간화, 경제의 평등화, 문화의 자유화에 대한 요구는 한국 사회의 변혁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민중 문화운동은 대학이라는 특수 집단에서 이루어진 부분 문화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통 문화에 대한 재인식, 문화적 공동체의 정립을 위한 노력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같은 학생운동 중심의 대학문화가 민중의식이라는 하나의 이념과 가치에 종속됨으로써 대학문화의 다양성을 획일화하고 역동성마저 저해할 우려를 낳았다. 민중의식은 폭력적인 정치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속성을 지닌 것이었다. 그러므로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민중 문화운동은 실천적인 가치를 중시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민중 문화운동은 대학 문화운동으로서의 실험정신이나 문화적 이상주의와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둘 수밖에 없게 되었고, 문화의 전문성이나 세련성도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로 문화적 민주화를 내세운 민중 문화운동 자체가 또다른 문화적 아나키즘을 자초할 수 있는 문제성도 나타내게 되었다.

대학문화에 대한 정치적인 규제와 이에 대응한 대학문화의 이념 과잉주의는 대학의 이성적 능력과 그 가능성을 제약하면서 학문 자체의 창조적인 활력을 위축시켜 놓았

다. 학문의 영역에서 볼 수 있는 사고의 경직성과 실천의 수동성은 모두 규제 정책의 길들여진 행동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에서의 학문의 발전은 활발한 토론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 대학 사회에서 학문적인 담론 체계와 관련된 토론과 쟁론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학생운동에서도 하나의 사회적 쟁점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제안, 그리고 토론을 통한 결론의 도출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 되었다. 오히려 당위적인 결론이 요구하는 격렬한 투쟁과 그 투쟁을 위한 선동이 이념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것이다.

3. 학문적 문화의 위기

우리 사회에서의 비정상적인 대학의 확대, 정치적인 규제와 간섭, 대학문화의 창조력의 상실과 위축, 파괴적인 학생운동의 이념적인 편향 등은 모두 산업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순 구조의 산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물론 정치세력의 폭력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 문화적인 현상에 대한 이성적 조정 능력의 상실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그런데 민주화 시대에 접어든 오늘에 이르기 까지도 대학 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양적인 성장이 대학 발전의 척도처럼 내세워지고 있으며, 학생운동의 경우에도 사회적 무관심과 개인주의적인 행동 양식이 일반화되고 있는 가운데 극단적인 투쟁적 이념운동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지성이 중심이 되는 대학의 권위와 그 상징성이 무너져버린 점이다. 대학은 현실 사회가 직면

해 있는 모든 문제의 최후의 대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학문 활동 자체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대학은 마치 현실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인력의 배양 기관처럼 인식되고 있다. 학문의 연구나 진리의 탐구라는 대학의 본질적인 기능보다는 팽창하는 산업 사회의 필요 인력을 양성 공급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처럼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요구가 대학 교육과정의 편성을 좌우하고 있으며, 대학교육이 직업교육으로 전락해가고 있다. 고등학교 교육을 마친 학생들의 과반수 이상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대학의 대중적인 개방과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엘리트 주의를 목표로 하는 대학교육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변질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것은 지식의 대중화 또는 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요구에 따라 재편되고 확대된 대학 존재를 놓고 볼 때, 이른바 순수 학문의 문화적 위기를 말해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대학이 처해 있는 학문적 문화의 위기는 실용적인 경제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현실의 문제성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지난 시대에 우리 사회의 산업화 과정은 이미 지적한 대로 경제 성장이라는 긍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인간 존재의 근본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문제성을 야기한 바 있다. 현실적으로 빈부의 격차, 지역과 계층의 갈등 등의 사회현상이 그 부산물로 대두되었고, 인간의 공동체적 유대감의 파괴와 그에 따른 인간관계의 왜곡이 더욱 커다란 과제로 남아 있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민주화와 함께 성장 발전의 균형이라는 보다 실천적인 방법이 요구되는 것이지만, 인간의 이성애 근거하는 학문 그 자체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산업 기술인력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대학을 세우고, 대학이 그러한 현실적인 요구를 따르기에 급급한다면, 학문의 의미와 그 가치는 현실적인 것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학문 중심적인 사고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대학문화의 중심을 이루는 학생운동도 극단적인 이념주의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극단적인 투쟁적 학생운동은 그 파괴적인 속성으로 인하여 대학 사회에서마저 지지 세력을 크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학생운동은 이성적 사고의 기반보다는 이념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또다른 이념을 내걸고 있으며, 갈등의 극복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또다른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문화는 대학의 본질에 해당하는 이성의 회복과 학문 자체의 문화주의적 자기 정립이 요청된다. 대학문화의 이념적 편향이 정치 사회의 긴장과 연관된다고 한다면, 문화주의의 회복은 결국 민주화에 기반을 둔 새로운 대학문화의 풍토 조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대학이 학문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 전반의 문제를 포괄하면서 더욱 차원 높은 인간 존재의 문제를 깊이있게 다룰 수 있을 때에, 그 문화적인 존재 의미가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학문적 문화의 위기는 상업주의적인 대중문화의 범람 속에서 진정한 대학문화의 성격을 고수하기 어렵다는 또다른 차원의 문제성과

직결되어 있다. 지난 '7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산업화 과정은 대학의 성장과 확대를 가능하게 하였고, 사회 전반에 걸친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였다. 물질적인 풍요를 미덕으로 생각하는 소비성향이 사회 계층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고, 여유를 여유로만 즐기는 각종의 여흥이 생활 속에 커다란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흔히 문화의 대중화 경향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중문화란 엄밀히 말해서 대중성에 근거하여 성립되며, 소비재로서의 예술생산을 염두에 두면서 그 상업주의적 속성이 드러난다. 대학이 지향하는 학문적 문화는 일종의 본격문화로서 가치의 순수성을 지향하며, 그 지적 수준과 세련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대학문화는 대학이라는 제한되어 있는 특정 집단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회 발전의 방향 자체가 대중화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대중문화는 급격한 성장을 보게 되었으며, 대중문화 자체가 상업주의적 통속성을 지향함으로써 여러 가지 역기능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대중문화의 성장 자체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것이므로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태도로 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이 대중의 삶에 대한 욕구와 창조적 사고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대학 사회에도 깊숙이 침투하여 상업주의적인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럴 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대학문화의 자율성과 자기정체의 회복이다. 이것은 대학문화의 창조력이란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대한 신념의 문제를 새롭게 인식시켜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대학문화는 건전한 대중문화의 발전을 위해 오히려 창조적

인 충격을 가해주는 정신적 자극제가 되어야 하며, 다양한 대중의 문화적 욕구와 취향을 건전하게 유도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문화가 대중문화의 통속화 과정에 그대로 휩싸여 버린다면 사회 문화적 창조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4. 대학문화, 새로운 가능성의 모색

대학문화의 근본적인 요건은 자유로운 이성이다. 자유 이성의 참다운 의미는 인간적인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데에서 찾아진다. 이러한 정신의 회복은 대학문화가 현실적인 가치 중심의 활동에서 벗어나 폭넓은 인문학적 사고를 중심으로 하는 학문적 문화를 지향하는 데에서 그 가능성을 획득할 수 있다. 대학문화가 인문학적인 것, 특히 대학학문의 중심에 자리했던 철학과 예술에 근거한 인간 활동의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현실 지향주의에 빠져 버린 문화적 경박성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대학의 교육이 실용적인 분야에 더 큰 관심을 집중하고, 대학문화가 현실 사회의 대중 문화에 침윤되고, 대학의 학생운동이 현실 정치의 논리에 민감하면, 대학문화는 이성 중심의 온전한 인간적 가치를 지향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학의 교육과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학문적 문화는 현실 사회의 요구를 모두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학이 현실의 요구에만 따르고, 유행을 중시하며, 정치 논리와 사회의 요청에만 급급하다면, 학문의 본질은 그 실용주의의 과도한 요구로 인하여 왜곡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대학문화는 현실의 요

구를 거부하고 본질적인 인간의 가치를 내세운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것이며, 기성의 가치와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실험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 비판과 실험은 언제나 인간의 본질적인 생명력의 회복과 인간 가치의 조화로운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대학문화는 인간적인 가치의 실현과 그 가능성에 대한 인문학적인 반성을 통해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인 연마를 통해 이룩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문화의 창조적인 주체로서 대학인 모두가 일체성을 보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고 전수하는 장소가 아니다. 대학이라는 공간 자체가 하나의 문화적인 창조 공간으로서 존재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학은 학업의 장소만이 아니라 생활의 공간이며, 대학문화의 창조적인 산실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모든 시설에 문화적인 개념이 도입되어야 하며, 그 활용 역시 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대학문화는 우리 문화 발전의 전체적인 양상을 놓고 볼 때, 주체적 의식의 확립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적 의식이란 주관과 실제의 종합적인 개념이다. 주관이란 인식적인 입장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지만, 주체라는 것은 인식과 행위의 과정을 포괄한다. 그러므로 인식의 차원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실천의 자세까지도 의미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고유 문화는 근대화 과정에서 그러한 주체적 의식의 결여로 인하여 그 흐름이 왜곡 단절되어 왔다. 대학문화를 중심으로 우리 문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

해야 할 것인가를 자각하고 체득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 전체의 삶과 그 가치가 무화되어 버릴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자세는 새로운 지식과 외래적인 문화의 수용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다. 외래적인 문화의 수용을 논하는 가운데 어느 부분은 우리 고유의 영역이고 어느 부분은 언제나 우리 것이 될 수 없다는 식의 방법을 고집한다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아무리 고유한 의미를 지닌 전통적 요소라고 하더라도 시대 상황과 삶의 방식에 제대로 적응되지 못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우리 고유의 성질과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수용되기 마련이다. 외래적인 문화의 수용 과정에서는 그 수용의 방향이 스스로의 입장과 그 발전을 위해 주체적으로 수용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다. 주체적 의식에 근거하여 독자적인 입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새로운 지식과 외래 문화가 수용된다면, 그것은 이미 외래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대학은 지난 반세기 동안 민족 분단의 상황 속에서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그 학문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존재 의미에서도 한국 사회의 정신적 지표를

제시해 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대학이 학문적 문화의 확립에 주력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대학문화는 민족과 국토의 분단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가장 깊이있게 인식하고, 그 역사적 조건의 극복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데에서 그 진보적인 의미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반세기의 역사가 국토의 분단으로 조건지워진 것이라면, 대학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대학문화는 이러한 비극적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좌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의 문화가 우리 민족 전체의 문화로서 지닐 수 있는 미적 가치와 기준을 더욱 확고하게 확립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학이 제시하는 새로운 문화가 민족 전체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자리잡고 그 자체의 습관과 전통을 세워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영원한 삶의 가치와 보편적인 의미를 자연스럽게 대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권영민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 『한국 현대문학사』, 『한국 민족문화론 연구』, 『소설과 운명의 언어』 등이 있다.